

가치기반수용모형을 활용한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문수희, 이동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of Agro-healing by Using Theory of Value-Based Adoption Model

Soo-Hee Moon, Dong-Hyun Lee*

Farm &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요약 본 연구는 치유농업 운영 활성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해 가치기반수용모형(VAM)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치유농업 이용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집단별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과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 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품질 요인 중에서는 접근성, 전문성, 지각된 비용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치유농업 이용 관심도 집단에 따라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아 부분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상태 확인 및 관리, 건강 관리 정보 제공 등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따라 건강치유, 교육, 사회적 재할 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치유농장 경영모형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value of and intention to use the healing agriculture provision program and its service quality by considering the Value-based Acceptance Model (VAM) to activate and expand Agro-healing. In addition, multi-group path analysis verifies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group according to the degree of attention to the use of Agro-healing.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general public on the consumer panel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irst, a significant influencing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Agro-healing resources program, its perceived value, and the intention to use the program. On the other hand, among service quality factors, convenience, professional service, and the perceived fe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Second, according to the group intending to use Agro-healing, the resources program and its service quality had a relatively high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thus having a partial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it is necessary to nurture experts in healing agriculture to provide services with expertise, such as checking and managing health conditions and providing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anagement model for healing farms and institutional support thr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healing agriculture programs and contents by identifying in advance the various service needs, such as health healing, educ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service provision.

Keywords : Agro-healing, Value Based Adoption Model(VAM), Service Quality, Structural Equation Model, Moderating Effect, Perceived Fee, Perceived Value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670003)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Dong-Hyun Lee(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mail: agriecon@korea.kr

Received April 17, 2023

Revised May 22, 2023

Accepted June 2, 2023

Published June 30, 2023

1. 서론

최근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제정되면서 농업 및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법 시행(‘21.3)에 따른 관련 사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확산을 위해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확산, 기반구축, 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물·동물 등 치유자원 발굴, 생애주기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일반 대상 예방형 및 질병·장애인 등의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개발, 개발된 콘텐츠의 과학적 효과 검증 및 보건·의료 분야와 공동 연구를 통해 치유 효과 원리 구명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법 제정 전·후로 농업 및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적 관심 증가와 함께 언론보도를 통해 관심 및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식물, 동물 등 농업 소재, 농업 활동, 농촌 환경을 통해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은 제공하는 활동 형태에 따라 원예치유, 동물매개치유, 농촌자원 치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1],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농진청은 연구개발, 기술보급 및 교육을 전담, 산업화는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치유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효율적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2].

치유농업 확산과 육성을 위해서는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3]. 최근에는 치유농업의 시설 유형별(농장형, 마을형, 사회복지기관형) 또는 서비스 목적 유형별(질환예방형, 치료재활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치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개발된 콘텐츠의 과학적 효과 검증과 보건·의료 분야와 공동 연구를 통한 치유효과 원리 구명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 성과 확산을 위해 중앙·광역 거점 기관 구축, 시

범사업을 통해 개발 기술 확산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치유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추진하는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설치하고 식물·곤충·동물·농촌경관 활용 치유농업 서비스 공간으로 2017부터 2021년까지 농장형 191, 마을형 43개소로 총 234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복지와 연계해 농업의 가치 확산 기반 구축으로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 예방 및 해결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최근에는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 인지 건강 개선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하여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경증치매 노인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 심화된 경쟁으로 수반되는 각종 스트레스, 지나친 생산성 증대 요구로 강요받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다[4].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식물, 동물 등 농업 소재, 농업 활동, 농촌 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치유농업의 콘텐츠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5].

국내 치유농업 선행연구로 김옥자·하규수(2018)[6]는 치유농업 공급조건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박수영(2016)[7]은 다양한 국내 사례분석과 치유농업에 대한 고객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정부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고은주·허철무(2020)[8]은 치유농업 자원별 제공프로그램과 접근성, 안전성, 전문성, 경제성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Hassink, et al.(2007)[9]은 네덜란드의 경우 치유농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사회적 욕구를 바탕으로 적합한 농업 환경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고 하였다[8].

국내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치유농업의 외연적 확대에 따른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 서비스품질과 함께 지각된 혜택과 비용을 고려하여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의 지각된 혜택과 비용을 통해 형성된 지각된 가치에 초점을 두는 가치기반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 서비스품질 및

지각된 비용은 지각된 가치를 매개변수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치유농업의 이용 관심도 집단별로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 서비스품질 및 지각된 비용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이용의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치유농업(Agro-healing)

치유농업은 국민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치유농업법 제2조). 이러한 치유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바, 대표적인 예로 원예치료는 식물을 시각적·미각적인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에 육체적인 재활과 더불어 정신적 피로의 회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10], 동물치유는 동물과의 접촉을 통하여 동물과 나누는 교감을 토대로 하는 매개치료와 승마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치유 승마 등의 동물과 함께 활동하며 육체적 정신적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4].

2.2 치유농업의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Parasuraman et al.(1988)은 서비스 품질이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품질의 개념으로서, 소비자에 의해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라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SERVQUAL 모형에서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구분하였다[11]. Cronin & Taylor(1992)[12]은 서비스품질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태도로서 개념화하고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품질은 고객 만족의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은 접근성(Convenience), 안전성(Safe Facilities), 전문성(Professional Service) 차원에서 첫째, 접근성은 소비자의 주 생활거주지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하기 용이해야 하고, 둘째, 안전성은 치유농업 시설 이용에 있어 보안, 긴급 호출·의료 서비스, 방범·방재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하고, 셋째, 전문성은 치유농업 시설에서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소비

자의 치유를 위한 서비스 및 치유농업 인적 자원의 전문적 지식·기술·능력이 보유되어야 한다[4]. 치유농업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공급조건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13]. 치유농업과 연계 가능한 수요자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연계 효과성이 높아 일반인, 만성 질환자, 감정노동자, 소방관, 학생, 노인·영유아, 여성·청소년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치유농업의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높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태도와 가치 증진으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질적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3 가치기반수용모델(VAM)과 이용의도 관계

기술수용과 관련하여 TAM(Technology acceptance medel) 및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기반의 연구에서는 기술이용의 동기를 이용자가 얻게 되는 혜택(benefit)의 관점에서만 다루었다. 그러나 기술수용에 대한 이용자의 가치는 혜택 이외에 희생(sacrifice)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Zeithamal(1988)은 지각된 가치를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과정에서 금전적 측면과 노력, 시간이라는 희생 측면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얻게 되는 모든 혜택과 희생으로 정의하였다[14]. Kim et al.(2007)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혜택(benefit)과 희생(sacrifice)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개념의 지각과 그에 따른 기술의 수용을 설명하는 가치기반수용모형(Value-based Adoption Model: VAM)을 제안하였다[15]. VAM에서는 요인 중 혜택을 유용성과 즐거움으로, 희생을 기술성과 인지된 비용으로 각각 제시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인지된 가치가 기술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16,17]. 이처럼 VAM은 비용과 편익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희생을 소비자 가치로 개념화한 것이다[18].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사용자가 서비스 활동으로부터의 혜택과 희생에 관한 인지를 바탕으로 내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전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19]. 이러한 평가는 혜택과 희생의 비교를 통하여 가치가 형성되는데, 인지의 관점은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의 측면으로서 이용의사결정의 핵심요인으로 적용되어 왔다. 또한,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희생으로 비금전적 희생

인 기술성(technicality)과 금전적 희생인 지각된 비용(perceived fee)을 제시하였다[15]. 따라서 지각된 비용은 소비자가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사용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의 주요 타인이 특정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20].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비용은 사용자가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유농업 시설 이용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용의도(Use Intention)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Davis(1989)는 '행위의도를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의 강도'라고 하였다[21]. 이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감정의 표현이며 소비자의 다양한 태도와 의견은 소비자 이용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22]. Rogers(1995)도 고객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정도가 쉬울수록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고객에게 수용되는 속도가 빨라지며, 어려울수록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라고 하였다[23,24]. 이처럼 이용의도는 이용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부여 요소이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치유농업 이용 의향, 타인에게 적극 권유,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도'를 통해 치유농업 이용 의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과 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가치기반수용모형(VAM)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유형, 서비스 품질로 구분하였다. 김옥자·하규수(2018)[4], 고은주·허철무(2020)[6]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치유농업은 식물자원, 동물매개, 농촌경관 유형별 제공프로그램과 접근성, 안전성, 전문성, 지각된 비용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이에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변수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 H1 :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식물자원, 동물매개, 농촌경관)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치유농업의 서비스품질(접근성, 안전성, 전문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치유농업의 지각된 비용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 치유농업의 지각된 가치는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이용 관심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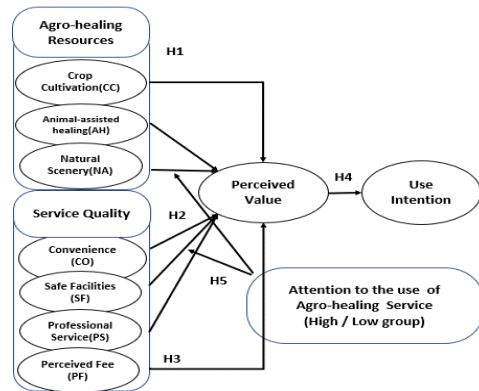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설문문항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김경미(2013)[9], 김옥자(2018)[4], 고은주·허철무(2020)[6] 등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 지각된 비용, 지각된 가치 및 이용의도에 대한 Table 1과 같이 변수별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Table 1. Question Items used in the Study

Variables	Measurement Item	references
Crop cultivation	crop cultivation information education, cultivation of crops, Weekend farm type operation, cooking with crops	Kim,G.M., et.(2013) Kim,T.G.(2014) Kim,O.J.(2018)
Animal-assisted healing	animal breeding, animal care activities, physical contact with animals, bathing animals	
Natural Scenery	good surrounding scenery, listening to the sound of nature, smelling the scent of nature, culture, history, food resources	

Convenience	convenient transportation, good accessibility, convenient location, short distance travel time	Parasuraman et al.(1988)
Safe Facilities	Safety of facilities, provision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deployment of service personnel, establishment of emergency system	Cronin & Taylor (1992)
Professional Service	provision of health condition,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natural diet, provision of dietary therapy, professional work, rehabilitation medical treatment	Kim,O.J. (2018) Ko,E.J.& Heo,C.M. (2020)
Perceived Cost(fee)	low cost of using facilities, low cost of programs, low cost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rvices	Kwak,J.H. (2022) Kim. et al.(2007)
Perceived value	effectiveness of Agro-Healing, overall intention to use Agro-Healing, Perceived overall evaluation at the expense of time and money	Kim. et al.(2007) Zeithamal (1988)
Use Intention	intention to use Agro-healing, actively recommend to others, intention to continue using	Davis (1989) Rogers (1995)

3.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 유형과 서비스품질, 지각된 비용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총 399부를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4.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과 잠재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활용하여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조절효과(Moderation effect)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

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18.8%), 여자(81.2%), 연령대는 20대(6.8%), 30대(30.6%), 40대(32.6%), 50대 이상(30.1%)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62.9%), 전문대(14.8%), 고등학교(13.0%)이었으며, 직업은 주부/무직(29.3%), 전문직(19.0%), 서비스직(17.3%), 공공기관(9.0%)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500만원미만(20.8%), 400만원미만(18.0%), 300만원미만(17.0%)이었으며, 가족구성은 자녀와 함께(42.6%), 혼자 살고 있다(26.3%), 부부만 살고 있다(15.8%), 부모와 함께(6.5%) 순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서비스 인식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50.6%),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본 적 있다(45.4%), 자세히 알고있다(3.0%)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희망시 애로사항으로는 정보부족(51.4%), 접근성 열악(15.0%)로 나타났으며, 치유농업 이용 유형은 체험형(43.1%), 건강치유형(37.1%), 여가형(13.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 의향은 그렇다 이상이 52.9%, 보통이다 이하가 47.1%로 나타났다.

치유 농업 참여 목적은 심리적건강(68.7%), 신체적건강(17.0%), 사회적건강(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습득처로는 인터넷(43.6%), 언론보도(19.3%), 방송TV(14.8%), 관련기관 단체(1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서비스 적정 체류기간은 당일체험(50.9%), 1박 2일~3박4일(35.3%)으로 높았으며, 숙박형(9.0%), 체류형(3.5%)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 희망 동행자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족(62.9%)으로 나타났으며, 친구(19.3%), 혼자(11.8%)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Principle component)분석과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5 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여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1],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의 결과 총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누적 설명력은 63.23%이었다. 그리고 KMO는 0.844, Bartlett 검정은 내생변수 $\chi^2 = 4442.24(p < 0.01)$ 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1은 식물자원, 요인 2는 동물매개, 요인 3은 농촌경관, 요인 4는 접근성, 요인 5는 안전성, 요인 6은 전문성,

요인 7은 지각된 비용, 요인 8은 지각된 가치, 요인 9는 이용 의도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법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0 이상이면 수용 가능, 0.70 이상이면 만족, 0.80 이상이면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판단한다[25].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모든 요인들의 하위 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이 0.663~0.846으로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ervice quality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value	% of Variance	Cronbach α
Crop cultivation	CC1	0.617	3.013	10.762	0.663
	CC2	0.655			
	CC3	0.797			
	CC4	0.623			
Animal-assisted Healing	AH1	0.740	2.775	9.911	0.832
	AH2	0.823			
	AH3	0.842			
	AH4	0.776			
Natural Scenery	NA1	0.654	2.707	9.667	0.733
	NA2	0.835			
	NA3	0.796			
	NA4	0.602			
Convenience	CO1	0.817	2.626	9.378	0.824
	CO2	0.848			
	CO3	0.819			
	CO4	0.605			
Safe Facilities	SF1	0.667	2.324	7.814	0.790
	SF2	0.780			
	SF3	0.727			
	SF4	0.807			
Professional Service	PS1	0.716	2.188	7.398	0.815
	PS2	0.757			
	PS3	0.738			
	PS4	0.596			
	PS5	0.767			
Perceived Fee	PF1	0.747	2.606	8.299	0.799
	PF2	0.859			
	PF3	0.809			
Perceived Value*	PV1	0.883	2.375	39.591	0.846
	PV2	0.770			
	PV3	0.650			
Use Intention**	IU1	0.700	2.345	39.084	0.840
	IU2	0.879			
	IU3	0.670			

*Kaiser-Meyer-Olkin : 0.844, Bartlett's Test. : $\chi^2=4442.235(p=0.000)$

잠재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였다. 또한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에 위해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분석하였으며, 타당성의 검증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연구 개념들의 집중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잠재 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적재치(λ)는 0.7 이상이며, C.R값을 보면 모두 1.96($p<0.05$) 이상으로 연구 개념들은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0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가 0.70 이상으로 적절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을 지니며, 각각의 구성개념의 AVE의 제곱근이 다른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크면 적절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한다[25].

Table 3.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results by research concept

Factors	Unstandardized Loading	Std. error (S.E.)	t-Value	Standardized Loading (λ)	AVE	CR	
crop cultivation	CC1	1.000	-	-	0.682	0.561	0.834
	CC2	1.002	0.102	9.790**	0.631		
	CC3	0.788	0.105	7.477**	0.646		
	CC4	0.876	0.109	8.049**	0.610		
animal-assisted healing	AH1	1.000	-	-	0.694	0.618	0.865
	AH2	1.209	0.086	14.086**	0.837		
	AH3	1.334	0.099	13.514	0.785		
	AH4	1.163	0.098	11.840	0.670		
Natural scenery	NA1	1.000	-	-	0.587	0.563	0.834
	NA2	1.380	0.135	10.209	0.760		
	NA3	1.146	0.114	10.068	0.730		
	NA4	0.968	0.120	8.081	0.522		
convenience	CO1	1.000	-	-	0.727	0.673	0.890
	CO2	1.016	0.070	14.517	0.809		
	CO3	1.056	0.073	14.452	0.811		
	CO4	0.907	0.081	11.169	0.609		
safe facilities	CF1	1.000	-	-	0.585	0.674	0.891
	CF2	1.526	0.150	10.176	0.692		
	CF3	1.565	0.148	10.562	0.741		
	CF4	1.559	0.143	10.878	0.781		
professional service	PS1	1.000	-	-	0.768	0.598	0.880
	HS2	0.938	0.064	14.648	0.773		
	HS3	0.720	0.065	11.044	0.584		
	HS4	0.748	0.065	11.423	0.602		
	HS5	1.012	0.076	13.298	0.700		
Perceived Fee	PF1	1.000	-	-	0.670	0.694	0.871
	PF2	1.595	0.125	12.725	0.834		
	PF3	1.319	0.106	12.477	0.775		
perceived value	PV1	1.000	-	-	0.772	0.803	0.924
	PV2	1.144	0.062	18.474	0.860		
	PV3	1.205	0.062	19.294	0.894		
Intention to use	IU1	1.000	-	-	0.786	0.745	0.897
	IU2	1.019	0.063	16.267	0.764		
	IU3	1.137	0.061	18.751	0.856		

Note: 1. * $p<0.05$, ** $p<0.01$

2.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0.5 , CR(Construct Reliability) ≥ 0.7 .

Table 4. Results of verification of the discriminant validity between research concepts

Variable	crop cultivation	animal-assisted healing	natural scenery	convenience	perceived fee	safe facilities	professional service	perceived value	intention to use
crop cultivation	0.561**								
animal-assisted healing	0.230	0.618**							
Natural scenery	0.237	0.122	0.563**						
convenience	0.170	0.024	0.116	0.673**					
perceived fee	0.099	0.002	0.048	0.179	0.694**				
safe facilities	0.205	0.083	0.246	0.158	0.072	0.674**			
professional service	0.160	0.110	0.246	0.104	0.207	0.357	0.598**		
perceived value	0.291	0.108	0.108	0.009	0.008	0.047	0.045	0.803**	
Intention to use	0.438	0.163	0.133	0.048	0.001	0.071	0.123	0.401	0.745**

Note: ** The diagonal element represents the average variance extraction value (AVE), and the non-diagonal element is the square valu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ncepts (r^2).

검증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AVE와 개념신뢰도 값이 각각 모두 0.50과 0.70보다 큰 값을 보여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적절한 집중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로 상이한 개념들 사이에서 측정된 값 사이에도 낮은 상관관계를 보일 때 판별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잠재요인 사이에 구한 분산추출값(AVE)이 대부분의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값(r^2)보다 크기 때문에 요인들 사이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26].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잠재요인들 간에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4.3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식물자원, 동물매개, 농촌경관)과 서비스품질(접근성, 안전성, 전문성, 지각된 비용) 요인이 지각된 가치라는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를 통해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SEM: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적합도 지수가 0.90 이상이면 우수하며, 모형적합도 지수가 0.80~0.90 사이이거나 RMSEA가 0.05~0.08 사이의 값을 가지면 모형적합도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27].

연구모델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1098.735$ (d.f=498, $p<0.001$), $\chi^2/d.f=2.206$, GFI=0.866, TLI=0.887, NFI=0.832, CFI=0.900, RMSEA=0.055로 지수들이 대체로 적합도 권장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내 잠재변수들 간의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구가설 1]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중 식물자원($\beta=0.626$, $p<0.01$)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매개와 농촌경관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 서비스품질 요인 중 전문성($\beta=0.177$, $p<0.05$)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비용($\beta=-0.309$, $p<0.01$)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 치유농업의 지각된 가치($\beta=0.960$, $p<0.01$)는 이용 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Std. Estimates (β)	S.E.	C.R.	P
H1-1 CC \Rightarrow PV	0.626	0.152	5.906	0.000
H1-2 AH \Rightarrow PV	0.020	0.072	0.298	0.765
H1-3 NA \Rightarrow PV	0.078	0.102	1.033	0.302
H2-1 CO \Rightarrow PV	-0.042	0.069	-0.634	0.526
H2-2 SF \Rightarrow PV	-0.095	0.139	-1.178	0.239
H2-3 PS \Rightarrow PV	0.177	0.083	2.077	0.038
H3 PF \Rightarrow PV	-0.309	0.093	-4.209	0.000
H4 PV \Rightarrow IU	0.946	0.061	15.738	0.000

Note: 1. C.R.=Critical Ratio. * $p<0.1$, ** $p<0.05$, *** $p<0.01$
 2. Model fit : $\chi^2=1098.735$ (d.f=498, $p<0.001$), $\chi^2/d.f=2.206$, GFI=0.866, TLI=0.887, NFI=0.832, CFI=0.900, RMSEA=0.055

4.4 치유농업 관심도 집단별 조절효과 검증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 치유농업 이용 관심도에 따라 집단별 영향의 차이가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기법을 통해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유농업 이용 관심도가 높은 집단(H)과 낮은 집단(L)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경로 간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치유농업 제공서비스와 서비스품질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치유농업 관심도 수준 집단별로 구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 따른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유농업의 관심도가 높은 집단 모형은 $\chi^2=1709.960$ (d.f=996, $p<0.001$), $\chi^2/d.f=1.717$, GFI=0.807, CFI=0.868, RMSEA=0.042이었고, 관심도가 낮은 집단 모형은 $\chi^2=1751.450$ (d.f=1004, $p<0.001$), $\chi^2/d.f=1.744$, GFI=0.802, CFI=0.862, RMSEA=0.043로서 모두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Fig. 2과 Table 6과 같이 제약모델(measurement weights)에 대한 유의수준이 0.001로 $p<0.05$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 관심도 수준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이용 관심도 수준 집단별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치유농업 관심도가 높은 집단(H)과 낮은(L) 집단에서 식물자원(CC), 농촌경관(NA), 접근성(CO), 전문성(PS)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의 유의미한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비용 저렴, 치료재활서비스 비용 지불 등에 대한 지각된 비용(PF) 요인은 두 집단에서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 관심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PV)와 이용의도(IU)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Verification results of the moderator effect

Model	χ^2	d.f	$\chi^2/d.f$	RMSEA	$\Delta\chi^2$	p
unconstrained	1,709.96	996	1.717	0.042	-	-
measurement weights	1,751.45	1,004	1.744	0.043	41.49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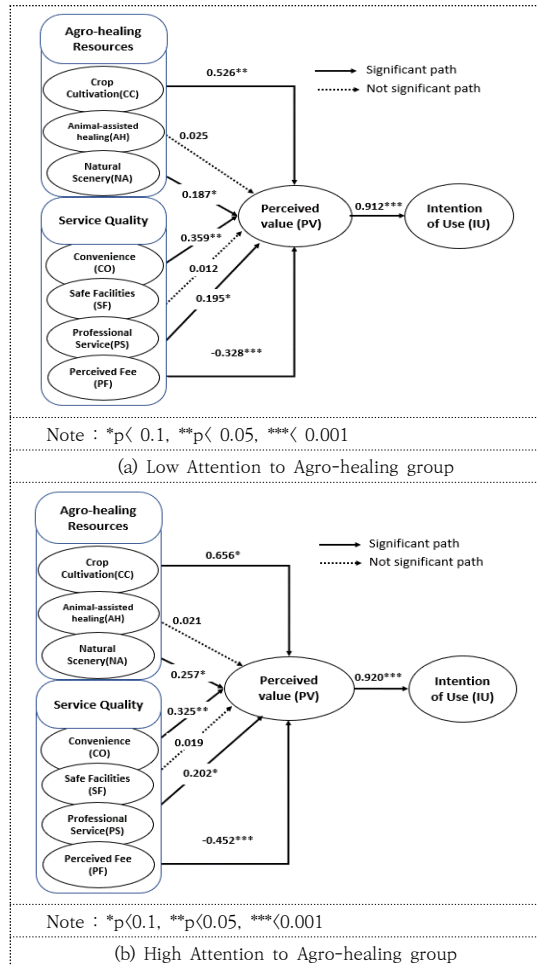


Fig. 2. A path diagram of the study Attention to Agro-healing group

다음으로 집단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중 농촌경관(NA)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치유농업 이용 관심도 수준이 높은 집단 모형 경로계수($\beta=0.257$, $p<0.065$)와 낮은 집단 모형 경로계수($\beta=0.187$, $p<0.066$)로 집단 간 차이의 C.R.(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between parameters)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품질 중 접근성(CO)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높은 관심도 집단 모형($\beta=0.325$, $p<0.002$)과 낮은 집단 모형($\beta=0.359$, $p<0.001$)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Path Coefficient Comparison

Path	Level of Attention in Agro-healing							Group differences (t-value)
	High group(n=211)		Low group(n=188)					
	Std. Estimates	P	Std. Estimates	p				
H1-1	crop cultivation(CC) ⇒ perceived value(PV)	0.656***	0.002	0.526***	0.000	-0.017		
H1-2	animal-assisted healing(AP) ⇒ perceived value(PV)	0.021	0.190	0.025	0.798	0.318		
H1-3	natural scenery(NA) ⇒ perceived value(PV)	0.257*	0.065	0.187*	0.066	2.541**		
H2-1	convenience(CO) ⇒ perceived value(PV)	0.325***	0.002	0.359***	0.001	-4.229**		
H2-2	safe facilities(SF) ⇒ perceived value(PV)	0.019	0.881	0.012	0.919	-0.882		
H2-3	professional(PS) ⇒ perceived value(PV)	0.202*	0.098	0.195*	0.058	-0.171		
H2-4	perceived fee(PE) ⇒ perceived value(PV)	-0.452***	0.000	-0.328***	0.004	-2.626**		
H3	perceived value(PV) ⇒ Intention to use(IU)	0.920***	0.000	0.912***	0.000	-2.301**		

1) Low attention to agro-healing <4 scores, High attention to agro-healing ≥4 scores.
 Note: *p < 0.1, ** p < 0.05, *** p < 0.01

또한, 지각된 가치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미치는 경로는 높은 관심도 집단 모형($\beta=0.920$, $p<0.000$)과 낮은 집단 모형($\beta=0.912$, $p<0.001$)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치유농업 유형별 제공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 인식도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인식 여부 조사 결과 치유농업에 대해 45.4%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업 이용 유형은 체험형, 건강치유형, 여가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목적은 심리적건강 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습득처로는 인터넷 43.6%, 언론보도 19.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유농업 서비스 적정 체류기간은 당일 체험 50.9%, 1박2일~3박4일 35.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가설 1]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중 식물자원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매개와 농촌경관에 대한 인식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 서비스품질 요인 중 전문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 지각된 비용은 지각된 가치에 부(-)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4] 치유농업의 지각된 가치는 이용 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가설 5]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 관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식물자원, 농촌경관의 치유농업 제공 프로그램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 의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요인으로 접근성, 전문성, 지각된 비용 요인에서 치유농업 서비스 이용 관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이용의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치유농업 서비스품질 중 치유농업 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용자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우울증, 고독감 등 정신적 건강 회복에 대한 수요가 높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정보제공, 자연식단 및 식이요법 제공과 함께 시설운영, 보건복지, 치유농업사 등 전문가 배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치유농업 이용자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프로그램 중 식물자원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교육·재배하기·조리하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 남성·여성, 청소년, 노인·영유아 등 생애주기 맞춤형 예방·건강증진 관리 콘텐츠 개발을 통한 치유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신체장애·질병·장애인 대상의 건강 유지·재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와 제공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중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농업·보건·심리·상담을 포괄하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전문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유농업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의 잠재고객들에 대한 건강, 교육, 사회적 재할 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개발함으로써 치유농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Design of Agro-healing Service in Agriculture Considering Life Cycle. 2017.
- [2] D. K. Kang, H. J. Lee, G. M. Gim, Educational Needs Assessment of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50, No. 2, pp. 23-54, 2018. DOI: <http://doi.org/10.23840/agehrd.2018.50.2.23>
- [3] S. H. MOON, S. D. Lee, D. H. Lee, A Study on Changes in the Semantic Network of Agro-healing through Bigdata Analysis -Focused on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gro-healing Act-,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12, pp.780-792, 2002. DOI: <http://doi.org/10.5762/KAIS.2022.23.12.780>
- [4] Gim G. M, J. H. Moon, S. J. Jeong & S. M. Lee,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4), pp.909-936, 2013. DOI: <http://doi.org/10.12653/iecd.2013.20.4.0909>
- [5] I. K. Choi,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Platform for the Vitalization of Healing Agriculture - Applying the Delphi Method-, *Culture & Convergence*, Vol.45 No.1, pp.461-470, 2023. DOI: <http://doi.org/10.33645/cnc-2023-01.45.01.461>
- [6] O. J. Kim, K. S. Ha,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Healing Agricultur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3 No.4 pp.59-72, 2018. DOI: <http://doi.org/10.16972/apjbe.13.4.201808.59>
- [7] S. Y. Park, Basic scheme for systematic introduction of green care in agriculture in Korea,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6. DOI: <https://doi.org/10.7851/Ksrp.2019.25.4.001>
- [8] E. J. Ko, C. M. He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ntion to Use on Supply Condition and Offer Program of Care Farming, 18(7):189-199,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7.189>
- [9] Hassink, J. & Van Dijk, M.,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ceedings of the Frontis Workshop on Farming for Health*, pp.16-19,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2006.
- [10] T. G. Kim, J. N. Heo & J. H. Jeon, Expansion of Healing Function of Urban Agriculture and Ways for Urban and Rural Cooperatio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pp.1-107, 2014.
- [11] Parasuraman, A., Zeithaml, Valerie. A., L. L. Berry, SERVQUAL :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 Vol.64, No.1, pp.12-40, 1988.
- [12] Cronin, J. J. and S. A. Taylor, Measuring Servicing Quality : A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Vol.56, No.3, pp.55~68, 1992. DOI: <https://doi.org/10.1177/002224299205600304>
- [13] L. H. Jo, The effect of post-COVID-19 awareness on the intention to partake in healing agricultural tourism: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upply conditions, Vol.36, No.11, pp.127-139, 2022. DOI: <http://doi.org/10.21298/IJTHR.2022.11.36.11.127>
- [14] Zeithaml, V. A. (1998),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52(3), 2-22. DOI: <http://doi.org/10.2307/1251446>
- [15] H. W. Kim, H. C. Chan, S. Gupta, Value-based adoption of mobile internet: an empirical investigation, *Decision support systems*, Vol.43, Issue 1, pp.111-126, 2007. DOI: <http://doi.org/10.1016/j.dss.2005.05.009>
- [16] J. C. Oh. (2017). An Empirical Study on Use-Diffusion of AR Technology based on VAM : The Moderating Effects of Postive TRI. *The e-Business Studies*, 18(5), 225-244.
- [17] J. H. Kwak, H. L. Dong, Factors Affecting Elderly People's Intention to Use of Digital Wealth Management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20, Issue 5, pp.411-422, 2022. DOI: <https://doi.org/10.14400/JDC.2022.20.5.411>
- [18] Y. G. Jo, J. E. Lee, M. S. Suh, J. G. Jung & K. H. Kim, A study on the formation factors of Continuance Intention of Real Estate Mobile App by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 and Value based Adoption Model,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Vol.25, pp.389-407, 2016. DOI: <http://dx.doi.org/10.17548/ksaf.2016.09.25.389>
- [19] V. A. Zeithaml. (1988).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Vol.52, No.3, 2-22. DOI: <http://doi.org/10.2307/1251446>
- [20] V. Venkatesh, M. G. Morris, G. B. Davis & F. D. Davis,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Vol.27, No.3, 425-478,

2003.

DOI: <http://doi.org/10.2307/30036540>

- [21] Davis, F. 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pp.319-340, 1989.
DOI: <http://doi.org/10.2307/249008>
- [22] Ajzen, and M. Fishbein, "The Prediction of Behavior from Attitudinal and Normative Variabl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6, No.4 pp.466-487, 1970.
DOI: [http://doi.org/10.1016/0022-1031\(70\)90057-0](http://doi.org/10.1016/0022-1031(70)90057-0)
- [23]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 The Free Press, New York, 1995.
- [24] S. Y. Lee, H. R. Yim & H. S. Kim, A Study on Influence Relation of Membership User's Perceived Benefit, Sacrifice, Value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by Using Theory of Value Based Adoption Model (VAM): Focused on 20's CJ Membership Service.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25, NO.6, pp.12-22, 2019.
DOI: <http://dx.doi.org/10.20878/cshr.2019.25.6.002>
- [25]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 Hill, 1978.
- [26] Fornell, C., and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Cla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1981, pp.39-50.
DOI: <https://doi.org/10.1177/002224378101800104>
- [27] Bagozzi, R. P. and Yi, Y.,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6, No.1, pp.74~94, 1988.
DOI: <https://doi.org/10.1007/BF02723327>

이 동 현(Dong Hyun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5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식품자원경제학과 농산물유통경제·무역전공 (농업경제학박사)
- 2008년 7월 ~ 현재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농업 R&D, 경영성과, 비용편익, 기술가치, 파급효과

문 수 희(Soo-Hee Moon)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21년 8월 :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강사
- 2022년 8월 ~ 현재 :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관심분야>

농업 R&D, 경영성과, 비용편익, 기술가치, 파급효과